



환율 강세에  
원재료 수입 부담  
식품·외식업 '불안'  
L1



Life

신성장동력  
OTC 화장품  
美소비자 정조준  
L2



# 입찰 담합하고, 무단점유 '쉬쉬' 서울 학교수영장 부정사례 적발

서울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발표  
5곳에 징계·경고...부정사용 확인  
사용허가 매뉴얼 등 운영제도 개선

서울 공립 초·중·고교 일부에서 수영장  
장 무단 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  
과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임의 감면하  
는 등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  
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등  
학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18일  
부터 9월 5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5개 학교에 대한 징계  
와 경고가 이뤄졌고, 부정사용도 다수  
확인됐다.

부정적 사용 사례로는 ▲학교수영  
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  
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  
이 적발됐다.

적발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A학교는  
수영장 사용인 선정 시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입찰 공고 이후 학교운  
영위원회 심의를 사후에 받았다.

학교수영장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  
황도 있었다. B학교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순위가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과  
정에서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  
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  
발 조치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등의  
부적정 사용도 확인됐다. C학교는 학  
교수영장을 38일간 무단점유한 기존  
사용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  
고,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에도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  
나,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만료일  
을 8개월간 연장했다.

D학교는 사용료 예산편성을 부적정  
하게 진행하고 과소 징수했다. 이 학교  
는 2021학년도 회계에서 본예산 사용  
료 수입 3억960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용료 미납 등으로 세입 경정이 발생  
했음에도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계속  
집행한 결과 세출이 부족하게 됐고, 공  
공요금과 용역비 등 총 2141만4000원  
을 2022학년도 회계에서 집행해 회계  
독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시  
했다. 시교육청은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안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  
그램 보급 등 수영장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중학생 10명 중 4명 "희망 직업 없어요"

교육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중·고등학생 장래희망 '교사' 선호  
고등학생 '대학 진학' 희망비율 하락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초등학교는  
장래희망으로 운동선수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래희망 순위는 대체  
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가운데, 중·고  
교생 10명 중 3~4명은 희망 직업이 없  
다고 답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  
난 5~6월 전국 1200개 초·중·고교 학  
생·학부모·교원 등 총 3만8481명을 대  
상으로 진행한 '2024년 초·중등 진로교  
육 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희망 직업은 응답자 12.9%  
가 '운동선수'를 꼽으며, 2018년부터 7  
년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사(6.1%)였다. 이어 ▲3  
위 크리에이터(4.8%) ▲4위 교사  
(4.7%) ▲5위 요리사·조리사(4.1%) ▲

6위 경찰관·수사관 등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은 6.8%가 장래희망으로 '교  
사'를 꼽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  
2위 운동선수(5.9%) 3위 ▲4위 경찰  
관·수사관(3.3%) ▲5위 약사(2.6%) ▲  
6위 간호사 등의 순이었다.

고등학교 장래희망도 중학생과 같이  
1위가 교사(6.9%)였고, 2위는 간호사  
(5.8%)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은 '군인'  
이 지난해 11위에서 3위(2.7%)로 급상  
승했다. 이어 ▲4위 경찰관·수사관  
(2.7%) ▲5위 최고경영자(CEO)/경영  
자(2.5%) 등의 순이었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  
율은 ▲초등학생 79.6% ▲중학생 60%  
▲고등학생 7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은  
66.5%로 지난해(77.3%)보다 10%p 이  
상 하락했다.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7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진로교육 현  
황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진행된 2015  
년 이후 처음이다. /이현진 기자

# 오세훈 "비상계엄 가담자에 책임 물어야"

서울시장,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  
"극단적 방탄 국회, 사태 촉발 원인  
제자리에서 추후 해법 고민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엄사태와 관련한 서울  
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엄사태와 관련한 서울  
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  
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계  
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 분립을 정면  
으로 위배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역  
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였  
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다"며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  
는 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야당  
에 떠넘겼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  
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  
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에 비춰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검점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중  
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  
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 시민 여러분이 그랬  
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  
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

# 서울시, 잠실·성수에 '수열에너지' 공급

도수관로 활용... 에너지 40% 절약

서울시는 도수관로를 활용한 수열  
에너지 보급 민간대상지로 '잠실 스포  
츠·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

전시)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성수동 K-프로젝트 복합개발 신축공  
사' 총 2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수관로는 수돗물 원수인 한강 물을  
취수장에서 정수센터로 보내는 관이다.

잠실에는 1시간 최대 1만6000RT(냉  
동톤), 성수동에는 1시간 최대 3000RT  
의 수열에너지가 공급된다.

도수관로를 이용해 수열에너지를  
제공하면 대형건물 외부에 냉각탑을  
설치해야 하는 기존 냉난방 방식보다  
약 40%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시  
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 안양시, 인구 55만명 회복... 청년정책 지속

3년 4개월 만에 인구 회복... 1.21%↑

최근 감소세를 지속해 온 안양시의  
인구가 3년 4개월 만에 55만명을 회복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안양  
시의 인구는 55만1228명으로 집계돼  
54만4660명이었던 지난해(12월)보다  
1.21% 상승했다.

지난 2021년 6월 54만9903명을 기록  
하며 55만명을 하회한 이후 처음으로  
55만명을 다시 넘겼다.

시 전체 인구 중 청년(19~39세)은 15  
만2968명으로 전년(15만1,664명) 대비  
0.86% 증가했다. 청년 인구가 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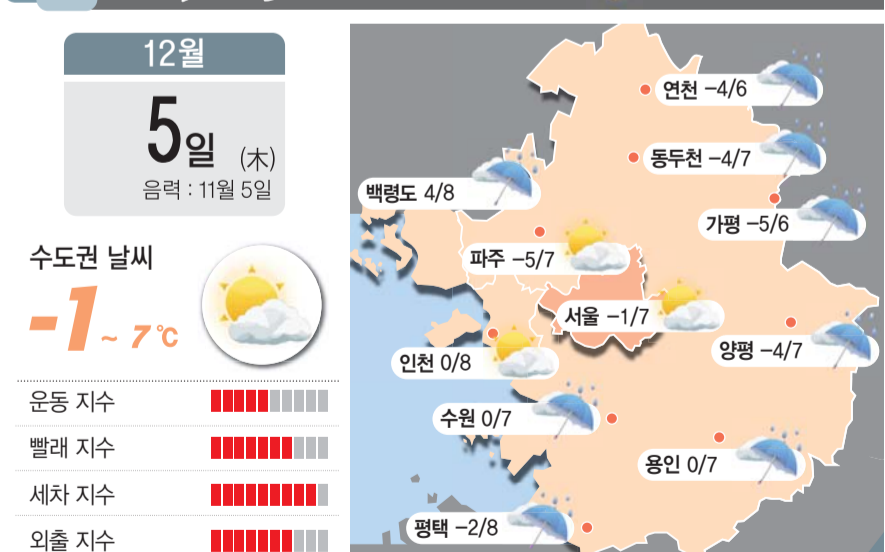
시는 이번 증가가 최근 관내 입주 물  
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시의 올해 인구증가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  
격화되면서 인구수가 상승했다"라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세대와 청년주택  
공급 물량을 고려하면 청년 인구를 포  
함한 인구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주택을 지속 공급  
할 계획이다. 오는 2032년까지 3106세  
대 청년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기독교·천주교 잇단 성명... "尹, 사죄  
하고 사법적 책임져야"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 등재 /사진 뉴스1

▲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45명 인적사  
항 공개  
▲장애인 선수 넷 중 하나, '인권 침해'  
경험



▲레스터 수장 판니, 데뷔전 승리... 웨스  
트햄 3대1 '격파' /사진 뉴스1  
▲출판인회의 "계엄령 선포, 민주국가  
기본원칙 훼손"

뉴스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